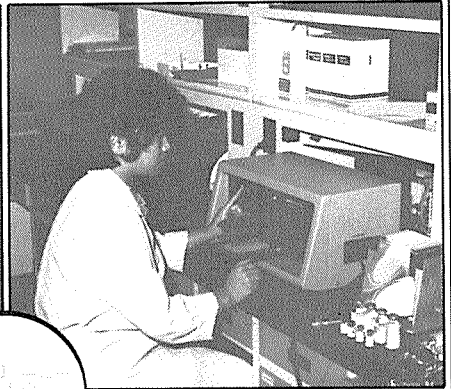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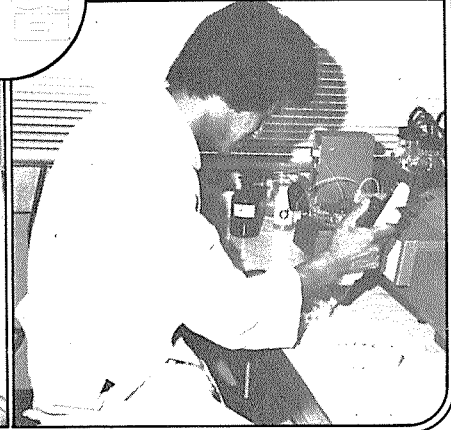


30代 건강관리는 스스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살수록 질병은 찾아오기 쉬우므로 정기검사를 통해
오랜시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십시오.



간헐





▶
임종선씨가 처음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건
협 전라북도 지부 청
사.

30代 건강관리는 스스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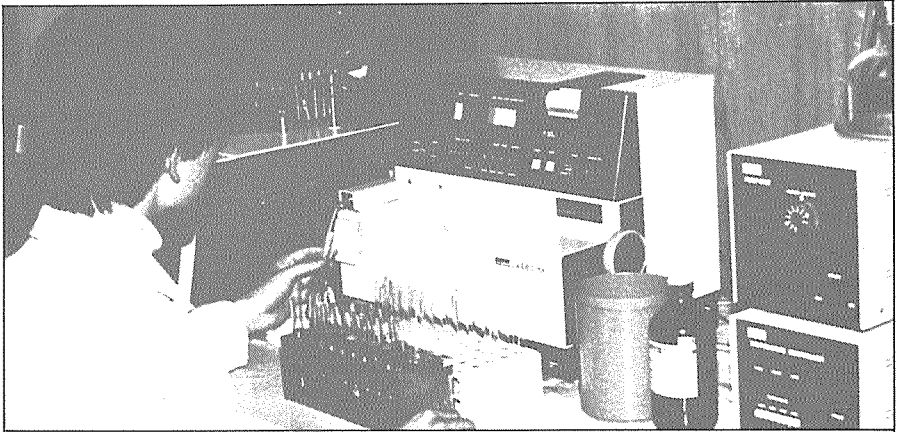
간염에 대한 빈번한 캠페인을 통하여 현대 사람들은 간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예방백신등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 간염환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생활주변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만연되고 있는 질병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에 생활과 밀접한 질병인간염에 걸려 오랜시간을 고생 한 임종선 씨(36세·건축업.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1가 166-89)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일이 바쁜 나머지 건강관리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예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도 않았읍니다. 일이 바쁜 나머지 신경을 못 쓴 것도 있습니다만...』

평상시 건강에 대하여 신경을 못 쓴다는 임종선씨. 아마도 현대사람들은 특히 30代 후반의 왕성한 사업열에 빠진 사람들 다수가 그렇겠다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이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 후 보름후에 다시한번 오라고 하더군요. 헌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 한달 후에 찾아갔었지요. 그 결과 다음날 날부터 입원을 해야 된다고 담당의사님이 말을 하더군요.』

몸살기운이 자주 나타나고 쉬 피곤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몸살기운이 자주 나타나고, 몸전체가 쉬 피곤해지는 상태가 몇칠간 계속되더군요. 그래서 김제천서무과장님에게 상태를 이야기 했더니 일단 종합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물론 약국에서 상담하여 약을 복용도 하였습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 상황을 차분하게 말하는 임종선씨.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간기능에서 기준 수치보다 높은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3월20일)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간염검사서서 항원이 양성이고, 간기능에서 기준 수치보다 높은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일단 전남의대 부속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 보라고 김제천서무과장님이 알선을 해 주셨습니다.』

『전북지부는 전남의대부속병원과 연결이 되어 협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중 유소견자들은 검사결과표를 첨부하여 매월 정식 공문으로 발송합니

다.』 옆에 자리를 같이 한 설 성수 사업과장이 전북지부의 업무를 소개 해 준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 후 보름후에 다시 한번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 한달 후에 찾아갔었지요. 그 결과 다음날부터 입원을 해야 된다고 담당의사님이 말을 하더군요.』

바쁜시간때문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수시로 체크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여 말하는 임종선씨. 병원 생활을 임종선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후로 한달간을 입원생활로서 시간을 보내지요. 치료방법은 휴식을 취 하면서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시되는 것이지요.』

간염이란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는 일단 임종선씨의 상태와 30代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전북지부 안경선관리의를사를 만나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설성수사업과장과 함께 검사 현장으로 갔다.

- 임종선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었습니까? -

『경제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간염입니다. 간염이란 이름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임종선씨의 경우는 바쁜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쉽게 전염될 수가 있었지요.』

『이 케이스는 조기에 발견 한 상태라고 봅니다. 간염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인데 임종선씨의 경우는 그런 상태에 해당이 안되기에 조기에 발견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염이란 간에 ▶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경제가 발전
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질병
이 간염이라고 말하
는 안경선전북지부
관리의사 (사진좌)



- 경계가 발전되면서 쉽게 전염되는 질병이 간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

『그것은 사업상 술을 여러 사람과 함께 마셔야 된다던가, 일에 바쁜 나머지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례, 몸이 쉬 피곤하고, 아프다고 하여 무작정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바쁜 시간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위생환경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 간염의 예방대책은 -

『제일먼저 B형바이러스의 간염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항체가 음성인 사람은 빨리 B형 간염백신을 맞아 저항력을 키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균형있는 생활과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가정과 직장의 위생환경을 정결히 하여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 20대에서 30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20대의 건강관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서 늦지 않은 상태입니다. 20대와 30대의 건강관리는 본인 스스로 수시 체크 해야 됩니다. 일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을 하여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사업장에 매일매일 직접 출장하여 검진을 하고 있는 안경선관리외사는 항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의술의 본 성격은 어느 여건,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인술을 베풀어야 된다고 덧붙혀 말한다.

한편 임종선씨를 치료한 전남의대부속병원장인 이박사는 『모든 질병은 조기 발견만이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강조했다.

협회 근무지침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남상도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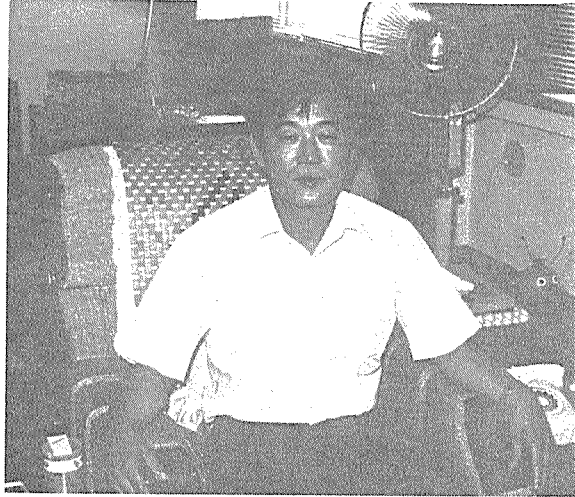
- 임종선씨와 같이 건강관리에 스스로 신경을 못쓰는 사례가 자주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북지부의 홍보계몽사업 방향은 -

『전북지부 직원들은 전원이 홍보요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메스컴을 충분히 활용하고, 직접적인 구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전북지부의 활성화 방안은 -

『전북지부의 사업 활성화 방안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전직원이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전직원들이 쉬는 날 없

▶
 협회의 근무 지침인
 “인화단결” “책임봉
 사” “정도관리” “창
 의연구” “자율정화”
 에 최선을 다하도록
 뒷받침하는것이 전북
 지부의 사업활성화 방
 안이라고 말하는 남
 상도 전북지부 사무
 국장.



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협회의 근무지침인 “인화단결”, “책임봉사”, “정도관리”, “창의연구”, “자율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전북지부의 사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82년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남상도사무국장은 휴가도 뒤로 미루체 무더운 여름을 왕성한 사업열로 보내고 있었다.

건강관리협회를 매스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임종선씨는 건강관리협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기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은 정부나 매스컴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30代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요즈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는 임종선씨의 말 속에서 기자는 언뜻 스쳐지나가는 말이 생각났다.

“병든다음 후회 말고, 건강할 때 검사받자”

19명의 직원으로서 2백30만 전북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북지부 직원들. 1일 3명씩 교대로 휴가를 보내면서 매일매일 사업홍보를 위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직원들을 보면서 기자는 전북지부의 열성적인 발전상을 느낄 수 있었다.